

日政下の中等學校體育教育發展過程에 對한 考察 — 男學生 커리큘럼을 中心으로 —

盧 熙 惠

序 言

現在 學校體育 中 가장 根幹을 이루고 있는 것이 中等學校 體育이라고 보겠다. 그 理由로서는 發育發達이 가장 왕성한 靑少年期의 教育을 담당하고 있는 機關이 中等學校이기 때문이다.

中等學校에서는 이들 靑少年들을 어떠한 方向으로 教育하고 또한 어떠한 形態로 이끌어 나가야 하는가? 하는 方法을 제시하고 이 方法에 부응하는 學習資源이 곧 教育課程이라고 보겠다.

이러한 中等學校의 體育教育課程에 對하여 光復以後부터 研究되기 시작하였으나 日政下(受難期)에 있어서의 中等學校 體育敎課의 發展過程에 對한 研究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實情이다. 이런 動機에서 筆者는 日政下에 있어서의 中等學校 體育教育의 發展過程을 살펴보기로 한 것이다.

한편 學校教育은 各 個人의 社會生活과 經濟生活을 떠나서는 成立할 수 없다고 보며 文化의 흐름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없다고 보겠다. 이와같은 複雜한 國民의 生活을 背景으로 成立된 體育 教育計劃을 正確히 알고 未來의 教育形態를 올바르게 洞察하기 위하여는 지난 날의 體育의 흐름을 잘 把握하여야 하고 면밀히 分析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체육사 연구의 기초자료로서 體育思想의 歷史의 研究에까지 影響을 미칠수 있다. 本 論文의 內容은 1911年~1945年 사이에 中等學校 敎科課程이 改正될 때마다 그 當時(時代)의 社會的 思想的 政治的 國際的인 背景이 무엇이였으며 어떠한 目標를 가지고 어떻게 形成되었는가를 究明하는데 主眼點을 두었다.

특히 그 當時 學校의 體育은 오랫동안 體操科로서 教育課程속에서 重要的 位置를 차지하고 있었고 또한 第二次 世界大戰中에 體鍊科라고 改稱되었다. 이와같은 名稱의 變化는 말할 것도 없이 敎材의 目樞와 內容의 變化에 따라서 이루어졌다고 보겠으며 이같은 變遷過程을 把握하므로써 體育의 內容과 實際의 指導方向 등을 詳細히 把握하게 될 것이며, 또한 中等學校 體育의 公과를 判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研究 方法에 있어서는 日制時下의 學校 教育制度和 教育課程中에서 體育이 차지하

고 있는 位置와 이것이 어떠한 發展過程을 밟았으며 어떠한 形態로서 改正되어 왔는가를 明確하게 究明하고 더 나아가서는 教育課程의 制定 및 改定 經緯와 教育課程의 性格과 教材 內容, 特徵 및 教材의 配當等을 그 당시의 文獻을 中心으로 상세히 分析 檢討하였다.

1. 朝鮮教育令과 高等 普通學校의 體育教育

1) 朝鮮教育令과 體育

日帝는 우리의 國權을 奪取해 總督政治를 실시하게되자 1911年 8月 23日 勅令 第299號로 朝鮮教育令을 公布하고 우리의 各級 學校規則을 같은 해 10月 20日 總督府令으로 制定하였다.

이 教育令을 公布하기에 日帝는 후진국으로서의 韓國의 教育을 時代的 經濟的 實情에 맞추어 실시한다는 허울좋은 實用主義의 假面을 내세웠지만 獨立思想을 念慮하여 奴隸的이고 盲從的이며 무기력한 人間을 要求하는 植民地教育에 着眼하여 短期年限制의 教育令을 實施한 것이다. 한편 各級學校 等を 可能的 限 적게 세워 우리에게 學問의 機會를 주지 않은 것은 勿論이고 日本人學校의 教育制度와 朝鮮人學校의 教育制度를 다르게 하였을 뿐 아니라 모든 部分에서 差別行政을 실시하였다.

2) 高等普通學校令과 體操

1906年 8月 27日의 學部分 第21號로 公布된 高等學校令 施行規則과 1911年 10月 27日 總督府令 第111號의 高等普通學校令 施行規則의 內容을 보면

「高等普通學校는 男子에게 高等普通教育을 하는바인즉 常職을 養하여 國民될 만한 性格을 陶冶하며 그 生活에 有用한 知識 技能을 授함을 本旨로 함.

高等普通學校의 修業年限은 4年으로 하고)이에 入學할 수 있는者는 年齡을 12歲以上으로서 普通學校를 卒業한 者 또는 이와 同等以上の 學力이 있는 者로 한다」하였다.

教科目을 보면

「修身 國語(日語) 朝鮮語及漢文 歷史 地理 數學 實業及法制經濟 習字 手工 唱歌 體操 英語로 함. 但 師範科 人學志願者에는 教育을 加함(規則 第7條)

實業은 農業 商業中 其一을 課하고 英語는 隨意科로 함(規則 第7條) 師範科의 教育科目은 修身 教育 國語(日語) 朝鮮學及漢文 算術 理科 實業 習字 圖書 手工 音樂 操로 함(規則 第8條)

체조의 內容을 보면

「體操는 身體의 各部를 均齊히 發育케 하여 姿勢를 端正케 하고 精神을 快活케 하며 兼하여 規律를 守하고 節制를 尙하는 習慣을 養함을 要旨로 함.

體操는 普通體操 器械體操를 修함이 可함(規則 24條)

이 要旨는 1906年의 高等學校令(관보 3346호)의 것과 같은 規則이나 「姿勢를 端正케 하고」라 하여 特히 充實期에 드러나는 青年期の 姿勢에 留意한 點이 한결음 더 發展된 것이 라고 하겠다.

體操科의 教材에 있어서 1906年 3月의 學校令施行規則에는 體操는 「學校體操」로 되어 있으나⁵⁾ 이 教育令施行規則에는 「普通體操器械體操를 授함이 可함」으로 指示되어 3, 4學年에 처음으로 器械體操를 指導하게 된 것은 若干의 進步라고 하겠다. 그리고 體操의 每週 教授 時間數는 學校令當時와 같이 3時間으로 되어 있다.

2. 第1次 學校 體育教育課程과 高等 普通學校 體育教育

1) 第1次 學校 體育教育課程 教授要目 制定

1914年 6月 10日 朝鮮總督府 訓令 第27號로 學校體操 教授要目 制定에 對하여 말하기를 「學校學生의 教育上 體操科의 重要한 것은 말할 것조차 없다. 그러나 從來 各 學校에 있어 그 教授하는 것이 往往 區區하여 어떤때는 適切치 않은 것이 있었다. 그러므로 여기에 學校體操 教授要目 別冊을 制定하여 準據할 것을 알게하여 이것의 實施에 當하여는 必히 學校訓育에 遵하고 土地의 狀況, 學校의 設備, 男女의 特性 및 必身의 發達에 鑑하여 適當한 教程을 定하고 그것으로써 本科의 目的을 達하는 데 遺憾없기를 期하라」고 하였다.

總督府 學務局에서 위와 같은 要目を 公布케 된 理由는 위의 訓令과 같이 從來 各 學校에 있어서는 그 教授하는 것이 斷片的이며 區區하고 往往 그 準據할 것이 없어 當惑함이 없지 않았으므로 이 要目は 體育科 教授上의 參考로 提供하려는 데 있었다.

이 要目的 性格에 對하여는 「各道長官 또는 各學校長을 督勵하고 本案에 提示한 것에 따라, 土地의 狀況, 學校의 設備, 男女의 特性 및 心身의 發達에 鑑하여 適當한 教程을 定하여 本科의 目的을 達하는 데 遺憾이 없도록 期한다」로 되어 있는 것처럼 어디까지나 하나의 基準으로 하여 參考로 할 資料로서의 意味가 있고 各地方, 各學校의 情況에 根據한 具體的인 課程, 즉 Curriculum을 構成하기 위한 參考, 또는 指導要領이었다.

2) 體操科의 教材

體操科의 教材로서는 各 學校마다 體操, 教練 및 遊戲로 兵式體操, 普通體操, 瑞典體操, 其他의 教材中에서 適切한 것을 採擇하였으나 瑞典體操를 基礎로 하여 그것에 獨逸式體操를 若干 加味한 體操中心의 要目이라 하겠다.

瑞典體操의 特徵은 첫째, 教授案 둘째, 體操(進步의 이다) 셋째, 模倣, 代身에 命令을 使用하고 있는 點이다.

◎ 體操의 내용은

- | | |
|----------|--------|
| ① 下肢運動 | ② 平均運動 |
| ③ 上肢運動 | ④ 頭運動 |
| ⑤ 呼吸運動 | ⑥ 胸運動 |
| ⑦ 背運動 | ⑧ 腹運動 |
| ⑨ 軀幹側方運動 | ⑩ 懸垂運動 |
| ⑪ 跳躍運動 | |

위와 같이 나누어져 從來 兵式體操의 運動으로서 行하여진 懸垂, 跳躍 等の 器械의 運動이 모두 體操가운데 包含되었다.

* 體操 實施上의 注意事項으로서는

첫째, 體操에 있어서의 運動의 速度 및 調律은 運動의 性質 및 進度에 應하여 緩急을 適當히 할것.

둘째, 體操에 있어서 運動의 回數는 運動의 性質 및 進度에 따라 多寡를 定함.

셋째, 體操의 運動에 따르는 口呼는 運動의 性質에 따라 使用如否를 定함.

넷째, 號令은 다 分解하였을 때의 例를 指示하였다. 連續 또는 結合하여 行할 때에는 이에 따라 適宜 變化시킬것.

다섯째, 懸垂 및 跳躍 等を 除한 諸 運動은 啞鈴, 球竿, 곤봉을 利用하여 便宜하게 行하여도 無妨함.

◎ 教 練

教練은 停止間의 諸 動作 行進間의 諸動作, 徒手의 小 中隊 教練, 執銃의 各個 및 小 中隊 教練으로 되어 있다.

注意事項으로는

첫째, 射擊, 散開, 突擊 等は 步兵操典에 明記되었으므로 別途로 指示않음.

둘째, 整頓은 初歩의 教授에 있어서는 左右 間隔을 取하기 위하여 恒常 左手를 허리에 올리게 하고 또 前後의 距離를 取하게 하기 위하여 後列學生으로 하여금 前列 學生의 肩側에 가깝게 兩手를 평형하게 올리게 함.

셋째, 行進에 있어 速歩의 길이는 年少의 學生 및 女子에 있어서는 適當히 이것을 縮少하고 그 速度는 年少의 學生에 있어서는 좀 빠르게 한다. 또 速歩는 때때로 여러가지의 길이 및 速度로 變化하여 練習함을 要함.

體操科의 教材는 學生의 心身의 發達에 應하여 能히 運動의 性質을 考慮하여 適切히 配當하였으며 또 教材의 進步는 循環 漸進의 方針에 依하여 各學年, 各學期마다 既習의 練習을 行하면서 漸次로 그 程度를 높였다.

3) 體操科 教授時間 外에 行할 諸 運動

第1 體操

每日始業前 晝食前에 있어 休息時間의 끝과 放課後 및 教授時間의 中途 등에 있어서는, 下記와 같이 체조를 실시케 하였다.

- | | |
|----------|-----------|
| ① 頭前後屈 | ② 踵上下膝屈伸 |
| ③ 臂左右及上伸 | ④ 上體後屈及前屈 |
| ⑤ 體後屈 | ⑥ 上體左右轉向 |
| ⑦ 上體左右屈 | ⑧ 呼吸運動 |

屋內 體操場의 設備없이 學校에 있어 雨雪 등으로 因하여 屋外에서 教授함이 不能한 때는 위의 體操를 普通 教室 등에게 行하게 하였다.

첫째, 體操科의 教授는 團體教授에 依하여 多數의 學生으로하여금 共同으로 運動시키는 同時에 恒常 各學生의 身體 및 精神 發達의 狀態에 留意하고 適切히 指導하고

둘째, 體操科에서 行할 事項은 學生은 身體 및 精神을 陶冶함에 있으므로 恒常 그 目的에 맞게 하되 適切히 技術을 치우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셋째, 運動은 單 하루라도 중지하여서는 안되므로 漸次 그 必要를 自覺시켜 家庭에 있어 서나 또는 卒業後에 있어서도 恒常 이것을 行하는 習慣을 養成하는데 努力하도록 하고

넷째, 體操科의 教室은 特히 清潔케 하고 通風 및 採光을 完全케 하도록 注意할것

다섯째, 各教授時間에 있어 教授할 教材는 學生身體 및 精神의 發達에 알맞게하고 또 他 學科目 教授時間의 配當의 狀況을 보아 그 分量 및 排列을 할것

위와 같은 指導上의 注意事項은 從來의 것에 比하면 近代의인 思想이 많이 取扱되어 있 다고 본다. 이것을 다시 要約하여 본다면,

첫째, 學級指導를 本位로 하면서도 個人的 心身發達을 考慮한 指導의 必要를 強調한 것.

둘째, 體操科 教授의 目的이 單只 身體修練에 그치지 않고 身體 및 精神의 陶冶에 있다 는 것을 指摘하고 技術의 置重을 避한 것.

셋째, 體育運動을 日常生活에까지 發達 導入시키려고 企圖한 것.

넷째, 學校衛生의 見地에서 體操場의 衛生, 進度, 時間配當 등에 對한 考慮를 促求한 것

다섯째, 體操에서의 運動의 速度, 調律, 回數, 口呼 등에 附言하여 一律化, 機械化를 警戒한 것 등의 精密한 學校體操教授要目이 分布되었다. 따라서 普通體操 兵式體操의 中心時 代는 없어지고 瑞典體操 中心의 時代로 展開케 되어 오늘과 類似한 一般形式 體操形式을 갖추게 되었으며 從來의 普通體操 兵式體操는 體操 教練으로 改稱되어 1945년까지 계속되 었다. 이 教育要目에 의하여 學校體操界는 混沌狀態에서 겨우 曙光을 보게되었다.

敎員의 留意事項에 對하여

1916年 1月 4日(官報 第147호) 데라우찌(寺內) 總督은 總督府 訓令 第2號로 「帝國教育의 本旨는 夙히 教育에 關한 勅語에 明示……天壤無窮하신 皇運을 扶翼하여야 할지니 是는 實로 教育의 大本이며 또 國家가 특히 教育을 布하는 所以니라. 故로 教育之任에 當하는 者는 恒常國民教育의 大本에 致思하되 특히 體育에 關한 事項中 下記의 三條에 留意하여 大綱三條와 注意 九 項을 말하였는데 身體教育에 對한 要旨는 다음과 같다.

第3條 强健한 身體를 育成할 事

「凡百의 事業을 遂行하는데 强健한 體力을 要하며 國家의 富强도 亦 强健한 國民의 努力을 待함이 多大하니라 身體 弱하여 事役に 不耐하면 어찌 能히 處世 服業하여서 帝國의 進國의 進運에 貢獻함을 得하리오? 故로 教育之任에 當하는 者는 이에 留意하여 强健한 國民을 育成함을 期할지라」라고 教育의 大綱을 밝히고 「教育에 從事하는 者는 그 初等教育과 高等教育을 不問하고 普通教育과 專門教育됨을 勿論하고, 恒常 此 大綱을 念頭に 置하고 全力을 舉하여 實現을 期하여서 教育의 本旨를 達하여야 할지며 此 實施方法에 對하여는 특히 九項에 注意함을 要하노라, 六項 身體 의鍛에 留意하여 體操와 共히 適當한 運動을 獎勵할 事.

사람이 處世成事하기는 强健한 體力을 持하여야 할지라 故로 身體發育에 伴하여 適當한 體操를 課하며 또 季節에 應하며 圭地의 狀況에 從하여 適當한 運動 遊戲를 獎勵하여서 身體를 鍛鍊하며 氣力을 旺盛케 하여 寒暑風雪을 冒하며 困苦缺乏에 耐하는 體質을 養할지오 또 學生으로 하여금 修學中은 勿論하고 卒業 後일지라고 自進하여 運動에 힘쓰는 風習을 養成하여 그 體質을 强健케 함을 期할 지니라」고 訓令하였다. 이것은 即 모든 事業을 遂行하는데 强健한 體力을 要하며 國家의 富强도 亦是 强健한 國民의 努力을 기다리는 것이 크므로 身體의 發育, 季節 土地의 狀況 등에 따라 適當한 運動 遊戲를 獎勵하여 身體를 鍛鍊하는 한편 將次 社人會이 되어서도 自進하여 힘쓰는 좋은 習慣을 育成하여야 한다는 必要를 強調하였으며 저들은 教育이라는 것은 實際面에 있어 法規보다도 第一線에서 責任을 진 教育者들의 品質과 努力으로 理想을 實際化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敎員의 留意事項으로 解決하려는 企圖였던 것을 엿볼 수가 있다.

3. 第2次 學校體育教育課程과 高等普通學校 體育教育

1) 第2次 學校體育 教育課程(體操 敎授要目) 改正

1914年 6月 10日 學校體操 敎授要目이 制定된후 이에 準據하여 學校體操는 實施되어 왔으나 그 후 世界第1次大戰의 勃發等에 依해서 日帝의 大勢는 全體主義, 國粹主義 思想에 依해 1925年 加藤 高明 內閣의 岡田良平文相이 學校에 「陸軍 現役 將校 配屬令」이 始作되어 敎練

의重視와 形式的인 瑞典體操 中心에 너무 치우쳐 靑少年의 心身 발달이 충분치 못하였다. 즉 遊戲, 스포츠 教材의 輕視가 最大의 缺陷이었다는 것이다. 그 후 各種 스포츠가 行하여져 從來의 體操 教授要目 內容으로서는 滿足치 못하겠다는 體操界의 視野의 擴大 등이 要目改正의 直接的인 原因이 되어 1927年 4月 1日 總督府 訓令 第8號로서 公布하여 教授 要目を 改正하였다.

要目改正 性格은 要目公布의 訓令 前文을 살펴보면 教育을 改正 教授要目に 準據하고 또 教練 教授要目과의 聯繫를 가지고 克히 土地의 情況과 學生兒童 心身을 發達을 期하라고 되어 있어 1914年 6月 10日의 要目은 「準據할 것이 없어 當惑함이 없지 않았으므로 體操教授上의 參考로 提供하는 程度이었으나 令番의 改正要目は 固定策으로서의 要求度와 強制度를 높이고 있다. 改正된 要點을 掲載하면 大略 다음과 같다.

2) 教 材

體操科의 教材를 體操, 遊戲 及 競技로 함. 但 男子의 師範學校 高等 普通學校 及 男子의 實業教育에 있어서는 劍道, 柔道を 加할 수 있음.

◎ 體 操

體操의 運動은

- | | |
|--------------|-----------|
| (1) 下肢運動 | (2) 頭運動 |
| (3) 上肢運動 | (4) 懸垂運動 |
| (5) 胸運動 | (6) 平均運動 |
| (7) 體側運動 | (8) 腹運動 |
| (9) 背運動 | (10) 跳躍運動 |
| (11) 倒立及轉廻運動 | (12) 呼吸運動 |

◎ 教 練

學校教練(徒手 基本動作)

◎ 劍道 및 柔道

劍道 및 柔道에 관하여는 一定한 方法을 指示하지 않았으나 適當한 方法을 定하여 이를 授함.

體操科 教材는 學生 兒童의 心身發達에 應하여 能히 運動의 性質을 考慮하여 大概 下記에 依한 것에 準據하여 適切히 配當할 것이며, 또 教材는 循環 漸進의 方針에 依하여 各學期나 學年마다 既習의 練習을 行하면서 漸次 그 程度를 높인다.

3) 體操科의 教授時間 外에 行할 諸 運動

(1) 體 操

例, 舉踵半屈膝, 頭後屈, 臂側上伸, 體前下屈及側, 臂前上舉側下

(2) 競技 劍道, 柔道 其他의 運動

例, 弓道, 角力(씨름), 水泳, 漕艇萬庭球, 卓球, 野球, 스키, 氷上, 其他

4) 教授上의 注意

(1) 體操科의 教授는 恒常 그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헛되게 技術에 치우치는 것 같은 일이 없이 能히 各學生의 身體及精神의 發達에 留意하여 適切히 指導함을 要함.

(2) 體操, 教練 及 競技 劍道 及 柔道는 各々 特徵을 나타내어 서로 上倚하여 體操科의 素統을 만듦으로써 身體及精神의 陶冶를 完遂케 되므로 그 어느쪽에 치우쳐서는 안된다.

(3) 體操科에 있어서는 體育運動의 必要와 그 合理的 實施의 必要를 自覺시키며 恒常 이것을 行하는 習慣을 養成하여야 한다.

(4) 體操場은 恒常 이것을 清潔케 하고 用具其他의 記備에 留意하고 그 使用 및 取扱에 注意함을 要함. 또 室內에 있어서는 通氣及採光을 充分하게 함.

(5) 體操科의 教授 또는 教材의 選擇은 土地의 情況, 季節, 氣候等を 考慮하여야 한다.

(6) 運動의 回數 또는 練習의 度數는 運動의 性質及 進度에 應하여 多寡를 定하고 그 速度及 調律를 運動의 性質, 運動시킬 部位의 構造及 練習程度에 따라 緩急을 適當히 하여야 한다.

(7) 運動服裝은 보기에 흉하지않고 簡便한 것이 옳을 것이다.

(8) 教練에 있어 行進은 때때로 그 步幅, 速度 등에 變化를 주어 練習케 한다.

(9) 劍道및 柔道競技 등에 있어서는 特히 禮節을 重히 여기고 헛되게 勝敗에 사로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한다.

(10) 投砲丸, 投圓盤, 投槍 등에 있어서는 危險을 豫防하기 위하여 特히 監督에 留意한다.

5) 學校 體操 教授要目(第1次)과 改正 教授要目

體操는 1927년까지 14年間 實施되었으나 世界大戰의 勃發等に 依한 그 當時 國內外政勢에 많은 影響을 받아 日帝는 全體主義, 國粹主義思想으로 因하여 教練의 重視와 形式的인 瑞典體操 中心에 너무 치우쳐 있어 靑少年들의 心身의 發達段階에 充分히 應하지 못하였다는 原因과 遊戲, 스포츠 教材의 輕視가 最大의 缺陷이었다. 따라서 그 當時의 形勢는 從來의 體操要目 內容이 不合理하다는 點이 指摘이 되어 1927年 4月 1日 教授要目 改正을 보게 된 것이다.

그 性格에 있어서도 1914年 6月 10日 要目은 「準據할 것이없어 當惑함이 없지 않으므로 體操教授上의 參考로」 提供하는 程度이었으나 1927年 4月 1日 改正要目에는 本 教授要目에

(第2次)과의 比較

學校 體操 教授要目(1914)	改 正 要 目(1927)
<p>○ 體操 種目數 計</p> <p>1. 下 運動.....(11)</p> <p>2. 平均運動(10)</p> <p>5. 呼吸運動(7)</p> <p>6. 胸運動(2)</p> <p>7. 背運動(5)</p> <p>8. 腹運動(3)</p> <p>9. 軀幹側運動(3)</p> <p>10. 懸垂運動(29)</p> <p>11. 跳躍運動(29)</p> <p>(108)</p>	<p>○ 體操 種目數 計</p> <p>1. 下肢運動(12)</p> <p>2. 頭運動(3)</p> <p>5. 懸垂運動(25)</p> <p>6. 平均運動(12)</p> <p>7. 體則運動(9)</p> <p>8. 腹運動(4)</p> <p>9. 背運動(11)</p> <p>10. 跳躍運動(62)</p> <p>11. 倒立及 轉廻運動.....(10)</p> <p>(136)</p>
○ 教 練	○ 教 練
秩 序 運 動 徒手, 小・中隊 教練	秩 序 運 動 徒手, 分・小隊教練
<p>○ 遊 戲</p> <p>① 競技를 主로한 遊戲(9)</p> <p>② 發表의 動作을 主로한 遊戲.....(4) (16)</p> <p>③ 行進을 主로한 遊戲.....(3)</p> <p>○ 擊劍및 柔術</p> <p>一定의 方式을 指定 지 않고 從來의 方法에 依하여 適宜이를 授함</p> <p>○ 體操科 教材의 配當</p> <p>學生의 心身發達</p> <p>運動의 性質</p> <p>教材의 進歩는 循環</p> <p>配當例示</p> <p>普通學校</p> <p>女子 高等 普通學校</p> <p>及 同 師範科</p> <p>高等普 通學校及</p> <p>同 師範科</p>	<p>○ 遊戲及競技</p> <p>① 競爭遊戲(13)</p> <p>② 唱歌遊戲(5)</p> <p>③ 行進遊戲(10)</p> <p>④ 走技, 跳技及 投技(15)</p> <p>⑤ 球 技(12)</p> <p>(55)</p> <p>劍道및 柔道</p> <p>一定한 方法을 指定하지 않으나 適當한 方法 을 定하여 이를 授함</p> <p>○ 體操科 教材의 配當</p> <p>配當 例示</p> <p>普通學校</p> <p>女子 高等 普通學校及 女子實業學校</p> <p>高等普通學校 男子</p> <p>實業學校, 師範學校</p> <p>普通 男學生部</p> <p>女學生部</p> <p>演習科男學生部</p> <p>女學生部</p>
○ 體操科 教授時間外 行할 諸運動	○ 體操科 教授時間 外에 行할 諸運動
<p>① 體操(7種의 體操)</p> <p>② 擊劍 及 柔術 遊戲 其他의 運動(14種)</p> <p>冬季에 있어 獎勵할 遊戲(3種)</p> <p>○ 教授上의 注意(5項目)</p>	<p>① 體操(6種의 體操)</p> <p>② 遊戲及競技, 劍道, 柔道, 其他의 運動 (10種)</p> <p>○ 教授上의 注意(11項目)</p>

準據하라고 政策으로서 要求度와 強制度를 높이고 있다는 點을 들 수 있다.

한편, 敎材內容에 있어 體操科의 敎材가 스포츠 中心으로 되어가고 있다고 본다.

한편 劍道와 柔道を 加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點을 들 수 있고 또한 敎材의 配當에 있어서 敎材는 學生의 心身發達에 알맞게 運動의 性質을 考慮하라고 強調한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 外의 敎授時間 外에 있어서 行할 諸運動에 있어서의 運動種目的 감소와 敎授上의 注意事項, 體操場의 恒常 清潔히 할 것과 室內의 通風, 採光과 用具의 設備, 使用, 取扱에까지 具體적으로 言及하고 運動의 量, 服裝까지 詳細히 說明한 것은 相當히 合理的인 政策이라고 보겠다.

4. 第3次 學校 體育 敎育課程과 高等 普通學校 體育

1) 第2次 學校 體育 敎育課程 改正

第2次의 敎授 要目 改正 후 滿洲事變을 비롯하여 國家主義 軍國主義를 指向하고 中國本土에 侵略의 야욕을 품고 있던 時代인지라 學校敎育을 軍隊敎育의 豫備 敎育의 見地에서 體育界에도 여기에 따라 1937年 5月 29日 總督府 訓令 第36號로 새로운 敎授要目を 公布한 것이다.

訓令의 前文을 보면 學校 體操 敎授 要目を 1937年 6月 1日부터 下記와 같이 改正한다로 시작하여 마땅히 本 改正敎授要目에 其하고 또 學校 敎練 敎授 要目과의 聯關를 갖고 모를 지기 地方의 실정에 適切한 敎授要目を 定하여 이를 實施함으로써 「學生, 兒童의 身體 健全한 發達을 期하고 人格을 陶冶하는 데 遺應없도록 期하라」고 하겠다.

첫째, 前要目에서는 「準據하면 됨」이라 하였던 것을 「이에 基한다」라고 한 것은 當時의 情況으로 보아 劃一的 統制的인 性格을 더욱 더 높여 國策인 것을 意味한다.

둘째, 「敎授細目を 定하여」라고 되어 있다. 이는 前要目에 「있어서는」 「敎程을 定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敎科目에 있어서는 「敎授細目」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改正하고 表現이나 文脈을 상세하고도 具體적인 것으로 表現하였다.

셋째, 「人格을 陶冶한다」라고 表現한 것이다. 前要目에서는 「身體의 健全한 發達을 期함」이라고 되어있다. 그러나 이번은 身體의 健全한 發達을 期하는 것은 勿論이고 다시금 人格陶冶를 強調하고 있다. 이것은 體育에 依해 全人을 陶冶하는 것을 主要한 目標로 하였기 때문에 當時의 敎育思潮, 그 중에서도 獨逸의 體育思想에 影響을 받은 바 크다(平沼良 1941 : 110—115).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있어 體育를 人格陶冶의 領域으로 연결시킨 敎育은 1937年부터라 하겠다. 新要目的 性格은 上述한 바와 같으나 그 性格에 對하여서는 要目改正의 趣旨가 더욱 더 明確해졌으므로 다음과 같이 그 改正 趣旨의 內容을 잠시 살펴보기로 한다.

① 從來의 指導는 技術의 熟達을 最上의 目的으로 하여 體育本質에서 分離되고 있었다.

運動技術의 숙달뿐만 아니라 그에 의해 體得되는 合理的 身體修練과 精神練磨를 重視하여 全人的 教育과 團體의 生活 訓練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

② 獨逸, 瑞典, 丁抹 等の 여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教材中에서 適當히 選定하여 日本人에 알맞도록 融合시켜 國民的 體育의 立場에 選擇하였다는 것.

③ 教材의 發展의 配列과 教材의 性格에 따른 發展의 指導를 強調한 것.

全般的인 改正의 요점은

① 劍道 및 柔道, 弓道를 教授要目으로 할 수 있음.

② 教材를 2學年共通으로 하고 體操의 口畧을 規定치 않고 個個의 教材에 對하여서도 그 方法을 여러가지로 變化케 한 것.

③ 教材의 名稱을 日本語로 改正한 傾向은 教授要目뿐만 아니라 文化面에도 나타난 것으로 보아 反動的인 國粹思想의 表現이라고 볼 수 있다.

④ 競技의 分類를 變化시킨 것.

走技——走

跳技——跳

投技——投

球技——球技

從前의 走技, 跳技, 投技를 走, 跳, 投로 하여 「技」을 省略한 것은 高等 普通學校에서 取扱되는 陸上競技가 教材라기 보다는 純粹한 스포츠로서 取扱되었던 것을 警戒한 것이요, 當時의 스포츠 合理化 運動에 呼應한 것이다.

⑤ 活動的인 運動을 增加하여 內容이 豊富한 것

⑥ 相撲(씨름), 攻城球, 攻陣球, 弓道 等 日本 固有의 運動을 加하였다. 그러나, 遊戲 및 競技의 全 教材에 對하여 그 數가 많은 것은 아니었다.

⑦ 運動에 特徵을 發揮케 한 것

⑧ 用具의 單一化를 期한 것

이와 같이 全體主義의 方向으로 指向하면서도 그 方法에 있어서는 學生들의 發達段階에 對한 考慮로 自由主義 體育의 長點을 살리어 個性發展에 留意하였음은 特記할만하다.

從來의 體操으로 瑞典式의 徒手體操가 採擇되었으나 이 要目에 있어 처음으로 美的 律動的인 體操의 理論과 實際의 實地인 것이 많이 採擇되어 있다.

2) 體操科의 教材

「體操科의 教材는 體操, 教練, 遊戲 및 競技로함 但, 男子의 高等普通學校에 있어서는 劍道 및 柔道를 加할 수 있음 上記 教材外에 環境의 情況에 依하여 適當한 施設 및 指導者가 있을 때에 한하여 水泳, 스키, 스케이트를 加할 수 있었다.

◎ 體 操

體操는 下, 頭, 上肢, 胸, 懸垂, 平均 體側, 腹, 背, 步及走, 跳躍, 倒立及轉廻 呼吸의 13의 運動種目으로 되어 있다.

從來의 要目에 各種「步及走」의 種目を 增加시켰다고 본다. 이 目的은 「國民의 日常生活에 가장 必要한 步 및 走의 基礎的 訓練을 實施하려는 것인데 이에 依해 歩行力을 養成하려는 한편 所謂 正常步을 修得시키므로써 國民의 步行에 改善을 하려는 것이라. 라고말하고 있으나 그 當時 情勢 로보아)意圖的으로 强行軍의 基礎訓練에 目的을 두었을 것으로 생각 된다. 또한 伸縮性이 提示되어 用具나 口令이 提示되어 있지 않는 點이다. 이에 對하여 一面 不統一과 甚 繁雜하게 생각되나 올바른 研究에 依한 口令과 用具의 利用을 合理的이고도 發展的으로 教材를 取扱게 되었다고 본다.從來에는 要目에 提示된 口令, 用具에 너무 구애되어 체조가 單調하게 되어 있었다. 이것을 될 수 있는 대로 指導者의 自由로운 研究에 맡긴 것이라 한다. 또 用具도 그 種類를 줄여 經濟的 負擔을 가볍게 하여 內容을 充實을 圖謀하고자 하였다.從來의 教材는 자칫하면 單一的 部分的인 動作이 많고 形式을 重視하 나머지 運動自體가 輕視되는 傾向이 있었다고 하여 「姿勢보다도 運動 바로 그것을 즐겁게 시킬 것을 생각하고 特히 身體 各部의 機能 發達에 重點을 두고 活動的, 綜合的, 教材를 많이 採擇하였다. 그 가운데서 跳躍, 懸垂下의 運動 등에 있어 더욱 더 그 材料를 豊富히 選擇한 關係上 前要目에서는 190의 種目이었던 것을 245種目으로 增加시켰다. 이와같이 그 指導에는 充分한 融通性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教 練

男子中學校에 관하여서는 學校 體操 教授 要目(1931年 9月 26日)이 별도로 定해 있기 때문에 이 要目중에는 提示되어 있지 않다. 먼저 敘述한 教練의 內容은 「體操의 教授에 當하여서도 必然的으로 取扱되지 않으면 안될 基礎的 訓練」으로 하고 그의 充分한 指導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競 技

競技는 前要目에 比하여 分類의 方法이 다르고 또 그 種目도 顯著하게 增加되어 있다. 分類의 方法은 走, 跳, 投, 各種 球技의 項目으로 나누고 한편 運動 教材를 發展的 系統的으로 配列하였다. 教材의 數도 多方面에서 採擇되어 있어 前要目에 比해 走, 跳, 投의 15種目を 34種目으로 增加하고 球技만 그대로 12種으로 두는 한편 그 內容을 더욱 豊富히 하였다.

◎ 劍道 및 柔道

劍道 및 柔道가 中等學校에 있어 正課는 아니나 教授 要目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은 1937年 5月 29日 總督府 訓令 第36號의 教授 要目 公布 以來의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까지는 그 教材나 指導法에 대하여는 一定한 基準이 提示되어 있지 않고 「劍道 및 柔道の 教授에 當

하여 適當한 機會에 講話를 하여 實際의 修練과 相扶하여 그 效果를 올리도록 힘쓴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 改正要目에는 「劍道 및 柔道を 授함」이라고 되어있는 同時에 女子學校에서도 「劍道 또는 柔道の 基本動作을 加함을 得함」이라 하였다. 이 要目에 의해 처음으로 그 內容이나 指導方針이 確立되어 學校體育에 있어서의 武道의 位置가 뚜렷해 졌다.

「劍道는 基本動作, 應用動作, 形의 3項에 柔道는 基本動作, 自由練習으로 나누고 또 兩者同時에 講話를 두어 理論, 授業의 劍道, 柔道を 課하여 마음가짐(心得), 武道精神 等에 關한 內容을 들어 實際의 練習과 서로 잘 어울려 그 效果를 올릴 수 있도록 強調하고 있다

◎ 水泳, 스키, 스케이트

이러한 運動種目は 地域的 또는 季節的인 關係가 크므로 地方의 실정과 適當한 施設 및 指導者에 따라 指導하도록 되어있다.

教材의 配當은 原則으로서 2學年共通의 配當이 되고 學年에 있어 配當은 새로 教授될 教材만을 掲載되어 있다. 이 點을 보아도 教材의 敎가 뚜렷하게 增加된 것이 눈에 띈다. 한편, 劍道와 柔道에 있어서의 講話는 學年配當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때에 따라 適切한 것을 擇하여 簡明히 行하도록 注意를 주고 있다. 또 教授時間의 一部를 할애하여 教材 配當表에 提示되어 있지않은 保健的인 體操中에서 適當한 것을 選擇하여도 좋다고 하였다.

5. 體操과 教授時間外에 있어서 行하는 諸運動

첫째, 體操科의 教材中에 提示한 諸運動

둘째, 器械體操, 庭球, 野球, 卓球, 럭비, 蹴球, 漕艇을 環境의 情況과 學生의 心身의 發達 程度에 應하여 適切한 것을 選定한 후 充分한 指導 計劃 밑에 實施하도록 注意를 喚起하고 있다.

3) 敎授上의 注意

敎授上의 注意로서 14項目을 들고 있는데 指導計劃에 關한 것(目標의 把握, 教材의 調和的, 發展的 配當, 地域, 季節, 氣候, 設備 等の 考慮) 指導管理에 關한 것(自覺的 練習과 運動練習의 養成, 自然的 綜合的 取扱, 循環漸進的 取扱, 事故防止), 敎科時間 外의 體育指導에 關한 것, 各 種目に 關한 것 等으로 되어있다. 여기에서는 全體主義의 方을 取하면서 比較的 많은 自由主義的인 體育의 長點을 採擇하려고 한 點이 엿보인다. 그러나 技巧에 치우치지 않도록 警戒하여 身體修練과 精神의 訓練을 어디서나 強調하고 있다. 이러한 點으로 보아 각기 教材가 內包하고 있는 特色을 十分 살렸다고는 볼수 없다. 所譜 北歐的인 體操의 精神에 依해 規定된 感이 든다. 그 例로서 다음 14項目을 參考로 列擧하면 다음과 같다.

① 身體 및 精神을 調和的으로 發達케 할 必要가 있으므로써 體操科를 敎授할 때에는 身體를 修練을 한과 同時에 他 敎授科目과 聯繫를 가지고 그 精神의 效果를 發揮하는 데 힘쓴

② 體操科의 教材는 特徵을 가지고 體操科의 目的이 達成되도록 어느한쪽에 치우쳐서는 안된다.

③ 教授는 모름지기 學生의 身體 및 精神發達에 알맞도록 가르친다.

④ 體操運動의 必要를 自覺시켜 不斷히 이를 行하는 習慣을 養成시킨다.

⑤ 教授는 모름지기 土地의 情況, 季節, 氣候, 設備等を 考慮하여야 한다.

⑥ 體操科의 教授는 循環, 漸進의 方針에 依하여 끊임없이 既習 教材의 練習을 行하면서 漸次 그 程度를 높인다.

⑦ 器械, 器具를 使用하는 運動에 있어서는 특히 傷害를 豫防키 위하여 監督에 留意한다

⑧ 體操의 運動은 大抵 基本的 代表的인 것을 가르칠때 姿勢, 動作 등을 研究하여 가르친다.

⑨ 劍道の 教授는 主로 修練 및 試合에 依함이나 그 基本動作에 對하여는 빈틈없는 指導를 함.

⑩ 柔道の 教授는 練習을 主로 할 것이나 特히 技의 基礎的 練習을 重히 여기고 練習에 있어서는 投技(메치기)를 主로 하고 固技(굳치기)를 이에 따르게 함

⑪ 劍道 및 柔道の 教授는 適當한 機會에 이론강의를 行하여 實際의 修練과 相扶하여 그 效果를 높일도록 힘씀.

⑫ 教授時間外에 行하는 運動은 充分한 計劃및에 指導監督을 한다.

4) 1927年度 體操 教授 要目的과 1937年度

改正 體操 教授 要目的 比較

學校 體操 教授要目(1927)	改 正 要 目(1937年 5月 29日)
<p>前 文</p> <p>學校 體操 教授要目的 聯關을 갖고</p> <p>○ 體操 種目 計</p> <p>1. 下肢運動.....(12)</p> <p>2. 頸運動.....(3)</p> <p>3. 上肢運動.....(10)</p> <p>4. 胸運動.....(6)</p> <p>5. 懸垂運動.....(25)</p> <p>10. 跳躍運動.....(26)</p> <p>11. 倒立 及 轉廻運動.....(10)</p> <p>12. 呼吸運動.....(7)</p> <p>(135)</p> <p>○ 教 練</p> <p>秩序運動</p> <p>徒手 分 小隊 教練</p>	<p>前 文</p> <p>마땅히 本 改正 教授 要目에 基하고 또 學校 教練 教授 要目的의 聯關을 갖고</p> <p>○ 體操 種目 計</p> <p>1. 下肢運動.....(18)</p> <p>2. 頸運動.....(5)</p> <p>3. 上肢運動.....(14)</p> <p>4. 胸運動.....(8)</p> <p>5. 懸垂運動.....(13)</p> <p>10. 步 及 走運.....(6)</p> <p>11. 動跳躍運.....(18)</p> <p>12. 動倒立 及 轉廻運動.....(7)</p> <p>13. 呼吸運動.....(7)</p> <p>(146)</p> <p>○ 教 練</p> <p>秩序運動</p> <p>徒手 分 小隊 教練</p> <p>學校 教練 教授 要目에 依한. <男子 中等學校 以上></p>

<p>○ 遊戲 및 競技</p> <p>1. 競爭遊戲.....(13)</p> <p>2. 唱歌遊戲..... (5)</p> <p>3. 行進遊戲.....(10)</p> <p>4. 走技 跳技 投技.....(15)</p> <p>5. 球 技.....(12)</p> <p style="text-align: right;">(55)</p>	<p>○ 遊戲 및 競技</p> <p>1. 各種(追逃, 運搬, 押引, 登, 格力)(22)</p> <p>2. 唱歌遊戲..... (7)</p> <p>3. 進行遊戲..... (6)</p> <p>4. 基本練習.....(18)</p> <p>5. 走跳投.....(34)</p> <p>6. 球 技.....(12)</p> <p style="text-align: right;">(99)</p>
<p>○ 劍道 및 柔道</p> <p>一定한 方法을 提示하지 않았으나 方式에 依해 適宜, 이를 授함.</p>	<p>○ 劍道 및 柔道</p> <p>適當한 機會에 講話를 行하여 實柔의 修練과 相扶하여 그 效果를 올리도록 힘씀.</p>
<p>○ 體操科教材의 配當</p> <p>學生의 心身發達에 應하여 能히 運動의 性質을 考慮하여 下記와 같이 表示된 바에 準據하여 適當히 配當함. 教材의 進度는 循環漸進의 方針에 依하여 各學年 各學期, 各時마다 既修의 練習을 行하여 漸次 그 程度를 높인다.</p>	<p>○ 體操科教材의 配當</p> <p>모름지기 學生의 身體 및 精神, 情況에 應하여 그 方法을 適切하게 함. 入學資格, 修業年限 등을 參酌하고 教材 配當表 中 相當學年에 準하여 適宜 教材를 配當함.</p>
<p>配當例示</p> <p>高等普通學校</p> <p>○ 體操科 教授時間 外에 있어서 行할 諸運動</p> <p>1. 體操(6種)</p> <p>2. 遊戲及競技劍道 及 柔道 其他의 運動(10種)</p> <p>○ 教授上의 注意(11項目)</p>	<p>配當例示</p> <p>高等普通學校</p> <p>○ 體操科 教授時間外에 있어서 行할 諸運動</p> <p>1. 體操科의 教材中에 揭示한 諸運動</p> <p>2. 器械體操, 庭球, 野球, 卓球, 壘球, 球漕艇等(7種)</p> <p>○ 教授上의 注意(16項目)</p>

1937년에 學校 體育 教育課程을 改正하므로서 Sport 萬能時代의 막을 내리게 하였으며 國防能力의 增強을 위한 軍隊教育의 豫備 教育時代가 시작되었다. 따라서 學校體育教育課程도 그 當時 社會의 要求에 따라 다음과 같이 改正되었다.

첫째, 學校 敎練 敎授 要目과의 聯關을 가지고 地方의 情況에 適切한 敎授 要目を 定하여 學生의 身體의 健全한 發達과 人格陶冶하는데 強調한 點.

둘째, 劃一的 統制的인 性格을 더욱 높여 國策에 맞도록 한 點.

셋째, 敎授要目이 상세히 具體的으로 指示된 點.

넷째, 身體의 健全한 發達을 期하는 것은 勿論이며 다시금 人格陶冶라는 말을 強調한 것은 1937년부터라고 하겠다. 또한 具體的인 內容에 있어서는 從來의 指導의 熟達에 置重하고 있던 것을 技術의 修練뿐만 아니라, 合理的인 身體修練과 精神의 練磨를 重視한 全人의 完成과 團體의 生活訓練에 置重한 點이며, 獨逸, 瑞典, 丁抹式의 體操流派의 教材中에서 適當히 選定하여 國民體育이라는 新의 次元에서 統一 시켰으며 教材의 發展의 配列과 指導를 強調하였다. 또한 教材中 새로운 劍道 및 柔道와 弓道を 敎授 要目으로 할 수 있다고 定하고 名稱을 日本語로 改正한 傾向은 敎授 要目뿐만 아니라 文化面에도 나타났다. 이것은

國粹思想의 表現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遊戲 및 競技의 分類를 變化시켰으며(競技 遊戲를 各種 遊戲로), 陸上競技를 教育的인 教材로서 取扱하기 보다는 純粹한 “스포츠”로서 取扱하던 것을, 警戒한 것이라고 보며 當時의 “스포츠”合理化 運動에 呼應한 것이라고 보겠다.

한편 活動的인 運動을 增加시켜 內容을 豊富하게 한 것이며 低學年의 教材의 取扱을 될수록 自然的 綜合的으로 取扱토록 強調한 點과 用具의 單一化 等 全體主義의 方向으로 指向하면서도 그 方法에 있어서는 學生들의 發達段階에 對한 考慮로 自由主義 體育의 長點을 살리어 個性發展에 留意한 것을 強調한 것은 特記할 만한 것이다.

한편 教材中 體操科의 教材는 體操教練遊戲 및 競技로 改稱하였고 上記 教材外에 學校事情에 따라 水泳, 스키, 스케이트를 加할수 있다고 한 것이 特徵이라고 보겠다. 또한 體操 種目도 190種에서 245種目으로 많이 늘리고 各種 걷기 및 달리기의 種目を 늘린것은 國民의 日常生活에 가장 必要한 步 및 走의 基礎的 訓練을 實施하여 強行軍의 基礎訓練에 目的을 둔 것이라고 判斷된다.

끝으로 附言할 것은 日帝는 短期終結을 豫想하고 中日戰爭이 長期戰으로 들어가자 戰時體制確立에 狂奔하여 當時(1938年) 總督인 미나미(南)는 朝鮮教育令을 改正하여 學制를 日人과 같은 名稱(中學校 等)으로 하는 同時에 所謂 三大教育方針(國體名週, 內鮮一體, 忍苦鍛鍊)을 公布하고 各級 學校 施行規則에 體操는...「忍苦持久의 體力을 養成하여」라고 하여 이는 우리의 靑少年 等を 戰時의 勞動力 持久不足의 豫測과 實用 實戰主義의 軍事訓練에 對備한 術策으로 第3次 學校 體操 教授 要目を 다음해인 1938年 3月 30日(관보 3358호)에 1년도 못되오 다시 그 要目を 改正하여 同時에 學生들의 集團勤勞作業, 體力檢査 및 志願兵制度에 協力을 강요했다. 고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教材의 配當에 있어 皇國臣民體操와 男子 中學校에 있어 劍道 및 柔道の 基本動作을 가르칠수 있게 하는 한편 教授時間 外에 있어 行할 諸運動에 前課程(1937年)에서 「럭비」가 「럭비 球」로 改正되었을 뿐으로 第3次 學校體育課程에 더욱 日本的인 精神文化와 戰爭力으로 體位 體力의 國家管理가 強行되었음을 알수 있다.

5. 決戰下의 教育政策과 學校 體育教育

1) 中學校의 體鍊科

軍部勢力의 면밀한 計劃下에 日本의 所謂 滿洲事變을 일으킨지 얼마 안되어 軍事行動을 終結하고 滿洲國을 樹立하여 더욱 기세가 등등하여 졌으며 그 當時 國際情勢로 보아서 阻止할 能力이 弱함을 계기로 해서 侵略野慾을 버리지 않고 더욱 助長시켜 또다시 中日 戰爭을 일으켜 戰爭이 擴大되지 國家主義, 軍國主義 思想은 더욱 공고해 졌으며 이로 인한

日本の 精神文化를 世界 탄방에 誇示하는 한편, 明治 以來 여러나라에서 들어 온 教育制度를 根本的으로 改革하고 새로운 教育制度의 確立을 企圖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日本은 1937 年 5月 29日 總督府 訓令 第36號 公布한 後 1년도 채 못되어 1938年 3月 30日 總督府 訓令 第8號로 教授 要目이 改正된 것은 特히 三大教育方針 가운데 忍苦鍛鍊과 關聯시켜 忍苦持久의 體力養成을 目標로 하고 戰時的 勞動力不足의 豫測과 實用, 實戰主義의 軍事訓練에 對 備한 術策이라 보겠다. 한편, 日本人들은 이른바 戰爭의 長期戰과 戰勢의 不利함을 豫想하고 學生들을 集團 勤勞作業에 이용하고 國防力의 人的 資源 育成을 目標로 한 軍事訓練 치 중의 教育을 試圖하기 위하여 一視同仁同이니 內鮮一體니 하는 따위의 口實下에 1943年 1 月 21日 勅令 第36號로 中學校令, 同年 3月 27日 總督府令 第58號로 中學校 規程을 公布. 하게 이르렀다. 이것은 非常時局이니만치 學校體育의 根本的인 目的보다도 軍事基本能力과 團體訓練을 主軸으로 한 體操科를 體鍊科로 改正된 것이라 하겠다.

① 身體를 鍛鍊하고 精神을 鍊磨하여 剛健不撓의 心身을 育成하고 國防力의 向上에 힘써서 獻身奉公의 實踐力을 增進하는 것을 要旨로 함을 우선으로 한다.

② 그 目標가 어느 것이나 戰爭 目的의 完遂에 集中되어 中學校뿐만 아니라 各級學校에 이르기까지 鍛鍊主義 및 鍊成主義로 一貫되어 國民皆兵의인 取扱을 받게 된 것이다.

③ 基本的인 運動能力의 鍊成을 目標로 하는 힘의 體育이 強調되어 動作의 美와 情緒의 美的表現을 目標로 하는 面이 壓縮된 것이다.

例로서 中學校 體育科 教授要目に 있어 音樂, 運動을 보면 強步(軍隊式), 追風(오히려 一背景), 아사히-아침해), 구로가네노, 지가라(무쇠같은 힘), 軍艦行進曲, 愛國行進曲 등과 같이 戰時的 特色을 反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④ 團體訓練과 團體體操가 強調된 것이다. 먼저 徒手體操에 있어서는 運動을 指導의 順序로 配列하고 特히 第2徒手體操에 있어서는 이를 前操, 中操, 後操의 셋으로 나누어 一連의 運動으로서 連續的으로 實施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하여 團體體操가 盛行하였고 合同體操와 併行하여 集團行進이 모든 機會를 利用하여 強制的으로 實施하였으므로 이 時代는 軍事訓練의 基本인 團體訓練에 熱中한 時代, 즉 形式的인 訓練의 時代라고 보겠다.

體鍊科의 體操는 心身の 健全한 發達을 圖謀하는 同時는 團體訓練을 行하여 規律을 지키고 協同을 崇尚하는 習慣을 養成하였다 함.

① 體操 科體操에 있어서는 體操 教練 遊戲, 競技 및 衛生을 課할 것.

初等科에 있어서는 처음은 遊戲 및 簡易한 全體 運動에 重點을 두어 漸次 複雜한 運動으로 나아가는 同時에 團體運動을 規律的으로 할 것.

高等科에 있어서는 그 程度를 높여 男兒에 있어서는 特히 教練을 重히 할 것. 體操에 있어서는 特히 身體의 各部를 均齊히 發育케 하고 姿勢를 端正히 하여 機敏케 하고 快活剛毅의 精神을 養成함에 힘쓸 것.

② 教練은 特別 團體訓練을 重히 하고 規律協同을 崇尚하고 服從의 精神을 涵養함에 힘
을 것.

衛生에 있어서는 衛生上의 基礎的 訓練과 救急 看護 等도 加할 것.

教材는 一部の 것에 치우침 없이 各種目에 相當하여 體鍊科體操의 目的을 達成케 할 것
學生으로 하여금 運動 및 衛生의 必要를 理解시켜 自進하여 이를 實行하는 習慣에 引導
할 것(施行規程 第12條)

③ 體鍊科 武道

體鍊科 武道는 武道의 簡易한 基礎動作을 習得시켜 心身을 鍊磨하여 武道의 精神을 涵養
케 할 것.

初等科 男學生에 대하여 劍道 및 柔道を 課할 것.

高等科는 그 程度를 높여 이를 課할 것.

위와같은 內容으로 볼 때 基本的인 軍事能力의 習得을 目標로 하여 漸次 그 軍事 本來 能
力 程度를 높이려는 새로운 試圖라 하겠다. 以上과 같은 의도로서 各 運動種目的 性格과
指導目標의 中心이 設定되어 當時 決戰段階에 이른 日帝의 緊迫한 戰爭完遂의 政策 및 社會
的 要求였던 國防能力의 充實을 期한 것이라고 보겠다. 例를 들면 男學生에 對하여서는 劍
道및 柔道, 女學生에 對하여서는 薙刀(긴자루끝에 뒤에 젖혀진 넓은 날을 붙인 옛날의 무
기:長刀)를 課하게 하는 한편 每週 教授 時間 外에 무려 3時間의 團體訓練 等に 參與시킨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2) 教材의 配當

① 皇國臣民體操를 課함.

② 中學 外에 各種 學校에서는 劍道 및 柔道에 있어 授할 基本動作의 教材에 準하여 適
當한 學年에 있어 學年身體의 情況에 應하고 適宜 이를 授함으로 되어 있다.

3) 教授時間 外에 行할 諸 運動

① 體鍊科의 教材中에 揭示한 諸運動

② 器械體操, 庭球, 野球, 卓球, 럭비 , 蹴球 漕艇 等……7種目

이 運動들은 土地의 情況과 學生心身의 發達程度, 年齡, 性 等に 應하여 適當한 것을 選
定한 후 充分한 指導計劃밑에 適切히 實施하도록 注意를 喚起하고 있다.

教授上의 注意事項 역시 第3次 學校教育課程과 같다.

4) 體鍊科 實施後의 動向

1941年 12月 8日 所謂 太平洋戰爭이후 날로 激甚한 情勢下에 日帝는 모든 體育 運動競技

를 統制케되어 1942年 4月 18日 學第 94號의 學校體育 刷新指導에 관한件²⁵⁾의 通牒을 낸 후 5月 23日에는 學務局 體育行政의 諮問機關으로 大學, 專門學校 總長, 校長會議가 京城高商(現 公務院 訓練院)에서 舉行되어 學校體育 刷新指導方針에 依한 學校競技 種目的 整理選擇의 件을 協議한 結果 基礎體力の 鍊成과 國防 및 訓練에 重點을 두어 多數의 사람이 實施될 수 있는 種目을 選擇하여……學徒體育振興會의 企圖에 따른다는 이유로 大學, 專門의 球技를 廢止하고 中等學校의 球技對抗도 制限을 加한다고 決定하여 學生의 體育 競技大會는 全面的인 制約을 받게 되었다.

日本은 太平洋戰爭에서 漸次 敗色을 띠게 되자 人的資源을 總動員하여 國防力을 強化하려는 發惡的인 最後手段으로 우리의 靑少年들을 모두 戰場에 投入하고자 1942年 7月 7日에 所謂「國民精神 總動員 朝鮮聯盟」의 組織을 본 후 8月 1日에는 體力檢 定要綱, 10月 1日에는 徵兵實施의 對備策으로 朝鮮 靑年 特別 鍊成令, 1943年 3月 1日에 이르러 徵兵制, 5月 15日에는 決戰下 一般國民 體育實施 要綱, 7月 22日에는 學第 145號의 學徒 戰時動員體制 確立 要綱, 8月 22日에는 學徒動員令 등을 公布하고 從來의 體育大會가 國民體育大會에서 國民鍊成大會, 戰場運動大會, 戰力增強 運動大會, 國防體力 鍊成大會 등으로 改稱되어 各種大會中心制度를 廢止하고 體育訓練種目이라 하여 男子에게는 「戰技訓練」(行軍戰場運動・銃劍道・射擊基本訓練體操・陸上運動・劍道・씨름・水泳・雪滑・球技 등) 特技訓練(海洋・航空・機甲・戰車)을 實施하였다. 이 중에 陸上運動이라는 것도 「올림픽」의 色彩를 一掃한다고 하여「올림픽」의 種目을 없애고 重量運搬競技, 行軍競技, 牽引競技, 障礙物通過競技, 行軍競技擔架繼走니 하는 따위의 「戰鬪力 訓練」種目만을 採擇한 것으로 모든大會라는 것을 戰鬪訓練의 道場化하여 完全한 戰時體育으로 統制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體操가 體鍊科로 改稱되어 각각 教授及修練要目은 戰局의 推移에 따라 臨時措置에 依하여 補充되어 國防體育으로서의 性格을 띠게 되었다. 1944年 3月 18日 學第 57號의 學徒動員 非常措置 要綱에 관한 件, 4月 28日 學第92號의 學徒動員 體制整備에 관한 件 9月 1日 學第136號의 學徒勤勞動員의 徹底化에 관한 件, 等の 要綱을 學務局에서 通牒하였던 것이나 戰局의 急轉下로 成果를 보지 못한 채 日本은 敗亡하였던 것이다.

結 語

日政下の 中等學校 體育教育 Curriculum을 要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906年 舊 韓國 政府의 學校令에 依하여 確立되었던 學校制度를 1911年 8月 所謂 韓鮮教育令에 依하여 다시 改正하였다. 이는 日帝가 “民度에 맞는 教育”을 한다는 口實下에 日本人 教育을 위한 學校制度와는 別途로 高等 普通學校 4年이라는 劣等한 短期 年限制를 實施하여 韓國人을 教育的으로 差別하는 方針을 取해 나갔다. 그리고 國民이 心身發達을 위하여 必

須的으로 實施하여야 할 體育의 時間配當과 그 內容에 對하여서도 具體的인 指示가 없는 한편, 地方事情에 따라서 體操를 實施하지 않아도 되도록 適當히 處理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후 1914年 6月 10日 第1次 學校 體育教育課程 制定 內容을 보면 體操 教練 및 遊戲로 되어 있다. 이는 從來 행하여지고 있던 兵式體操, 普通體操, 스웨덴體操, 기타의 教材중에서 解剖, 生理學에 根底를 둔 스웨덴體操를 基礎로 해 獨逸式 操體를 약간 加味한 體操中心의 要目이었다. 이 時代(1914~1927年)를 스웨덴體操 中心의 學校體操, 教授 要目 時代라고 보겠으며 점차 現代의인 體操의 進步相을 보이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1927年 4月 1日 第2次 學校體育教育課程改正이 이루어져 遊戲, 스포츠를 中心으로 한 學校體操가 教授要目으로 改正되었다. 따라서 學校體育이 現代의 면모를 갖춘 時代(1927~1937)로 상온한 成長을 보게 된 것이다.

1937年 5月 29日에는 第3次 學校體育 教育課程을 改正하였다. 改正內容을 약술하면 人格 陶冶를 강조한 점과 運動技術의 修練뿐만 아니라 그에 의해서 體得되는 合理的 身體修練과 精神練磨를 중시하고 全人의 完成과 團體의 生活訓練에 치중한 점과 獨逸, 스웨덴, 덴마크 등 여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教材中 日本人(東洋)에 맞도록 劍道 및 柔道, 弓道를 教育 要目으로 하였다는 점이 중점과 다른 점이라고 지적할 수가 있다. 그 다음 해인 1938年 3月 30日 미나미(南)總督은 「國體明徴, 內鮮一體, 忍苦鍛鍊」의 三大教育方針을 宣布하여 第3次 體育教育課程 改正補完하고 効率的 운영을 한다는 理由로서 學制를 日本人 中學校와 같은 式으로 改稱한 것이다. 이러한 措處는 全體主義思想의 발로라고 보겠다.

그후 마침내 1941年 12月, 所謂제2차세계대전에 突入하자 日帝는 全體主義的 體育 즉 國民皆兵을 至上目標로 日本的인 古來의 柔道, 劍道, 弓道 따위를 強化하는 한편 1943年 3月 27日에 體操科이었던 것을 體練科로 改稱하여 體練科에서 教練, 體操, 武道を 하도록 하여 激化된 “皇國臣民”化的 植民地教育에 血眼이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時局인지라 軍隊式 體操의 訓步, 廢品回收, 行軍遠足이니 하는 따위의 日課로 體育教授課程은 姑捨하고 學業을 全廢하는 狀態로 우리 學生들은 疲勞와 營養失調 등으로 날로 體位가 低下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다.

日帝는 2차대전이 擴大되자 體育은 國家의 事業이라는 美名下에 國防競技라는 戰技訓練을 強調케 되어 中等學校體育은 空白狀態에 놓였던 것을 알 수가 있다.

以上の 것을 總括 要略하면 第1次, 第2次, 第3次의 體育教育課程改正까지는 教材의 內容 特徵, 配當, 教授時間外에 행할 諸運動, 教授上的 注意 등 具體的으로 提示되어 一線 教師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며 또한 體育教育의 合理化課程에 參考가 될 것으로 믿어진다.

(師範大學 體育科)

參 考 文 獻

1. 韓國官報(1900~1906)
2. 朝鮮總督府 官報(1910~1945)
3. 勞務局 學務課 編纂(1938), 朝鮮學 事例 規全; 京城 朝鮮教育會
4. 勞務局學 務課 編纂(1942), 現行 朝鮮教育法規, 京城, 朝鮮教育會
5. 昭和13以後「文部省 例規總覽」(1941), 日本, 東京, 玄文社
6. 羅絢成(1975), 韓國體育史, 서울, 文泉社
7. 羅絢成(1970), 韓國 學校體育 制度史, 서울, 國書出版教育院
8. 眞行寺明朗生外(1937), 「改正學校 體操 教授 要目の情神と其實施上の注意」日本, 東京, 日本體育學會, 13版
9. 平沼 良(1941)「國家國民の體育」, 日本, 東京, 目黒書店
10. 井上一男(1956), 學校體育 制度史 日本 東京都 大修館書店
11. 京城日報(1937~1942)